

하야 화계를 다스듬엇스미본디 약질이 라구슬 갖든삼이 옷사 못고 또한 허리알푸며 팔  
 이부러오되 오허려디심어업고 갈사록정신을 가다듬어 저무도록 쓰러질다가 별스  
 에도라와 초과를 먹고 몸이잇붙을실시임무일시도 좌우를 떠나지 아니하더라 성선이  
 의로이 창을의지하야 밤을지날시심신니 전々하야 잠을일우지 못하며 인체를싱각건던  
 유명이겨흐듯부인을영모하고 외쳐를스럼하미심간이 춘절하고 일편단심이 문호를회  
 복하야 남미 단회하난성스를추원하며 디선이북히지휘함을가망하더라 명조에니러소  
 제하미동조또한향다와 실과를가져왔거날바다 먹으미비록 밥을먹지 아니나 비골푸물  
 모르고 몸이조연가비와나라갈드조고 정신이청량하더라 또종일쇄소할시호흡이천  
 측하고강력이 쇠진하니외로이간고함이가련할지라이날글녁을갈진하야 쓰되일호도  
 티만치아니하더니일々은정신니아득하고괴운니혼미하거날계슈를의지하고잠간조  
 으더니몽흔이유々하야 눈을들미홀련미소년이단금벽포로혀디를도도 띄고나아오니  
 츠시본죽이곳진성이라소서디경왈군조엇지이곳에이르시요차쳐는진계속익이잠시  
 도머물비아니오이제는피차길이달났스니지류치못하리이다다만못잡나니나의부형  
 소식을자서이아르시나잇가군조는또한어니곳에게시니잇고진성이탄식답왈성은우  
 연이이리왔거니와 소저는엇지인간를바리고이곳에홀노와 무삼일을하시나뇨준부소  
 식을니또한아지못하거니와다만소저의사성존망을알길이업슴을슬허하더니이에  
 와만나문싱각지못한비라성은소서구활하신은혜로제상에머무러풍진에류락하야거

쳐를정치못하거니와나조는누명으로이와게시니잇고소제적연함누왈첩은인세를  
 하직하고사부의명을이어 화계를쓸거이와군조에오심은실시의외니원컨딘첩의소  
 락을저바리지마르소서첩이스부의구활하신은명으로이곳에은거하야 세상물욕를사  
 절하고오직문호를구할계교잇슬가바라오미간절하야바라미극할싸람이오이제선간  
 청정호신체의군조로더부러혼잡하슈작함이스부귀득죄할가져허흡나니도라가시  
 미원너로소이다성이침연이상하야슈형루났출가리오미한삼을드러쓰고나아가접슈  
 전념함이완연니척일갓트미소저로하고민망하야 손을급히짜히다가 쟈다르니남가  
 일몽이라일변식원호듯경희하야이러나소회하더니홀련도동이나와불니왈진호선니  
 엇지우리슈인을다리고희롱하야선가청정호도를더러이고인간영육을유련할뜻지잇  
 나뇨스뵈로하스성선이능히공부를일우지 못하리라하더이다성선이악연티경하야동  
 조를디하고체음왈닉속인을청하야일우미아나몸이곤하야우연이조을다가몽중의쥬  
 직을상견함이니장차엇지하리오하더라

第四回

眞道士授天書講學 百華郎帶晚月逃命

진도사가편서를유어강화하고 빈화평은서벽팔에명을도망하다

사부의엄교여차하시니한번죽으미월이로소이다동조위로왈성선은방심하소서사뵈  
 감동하시리니죽히근심할비아니이다하고인하야현금을니여한곡조를라니심이청  
 원하야인간곡조와다른지라선가곡조니세인이알비아니로디복중진티를씨섯스니홍  
 금이흔출하야듯다가문득비누슈면의추슈종형하니동조현금을긋치고문왈성선이전

후선경을 두로 보되 일호질기미업더니 일곡선가를 뜻고 비회를 통하시나 잇고 성선이 척  
 연티 왈 조현의 슬픈가 스 천리를 감동하시니 부조 유천은 언성지 천이라 부싱 모혹 지은을  
 감지 못하시니 궁던 지동이 간혈에 서는 고로 이제 조현 중선가를 드르니 더욱 비회요 동함을  
 참지 못함이니 이다 동조 슈스 왈 성선의 효의 여족 하던 심을 감동하시니 다 성선이 스레  
 고 또 한 당치 아니 물일 칼 더라 이에 도라와 야심 하미 잉무 낭이 일오디 스부의 명을 썰이  
 응호 소서 성선의 의디를 슈렴하고 영전에 올나 가니 옥축을 복하고 도석 교의에 단좌하야  
 분향하고 경서를 보다가 성선을 보고 혼연 왈 군은 지성디 효라 족 하던 심을 감동케 하리라  
 하고 이에 좌를 슈고 말삼 할시 성선이 돈 슈스 왈 스제지도는 군신지 일체오니 성선을 엿지  
 과 장하 사제 조 몸들 곳지 업게 하시나 잇고 도석 왈 존현에 되 함은 선현의 형하 신비니 그  
 디를 오리곤 케함을 스좌하노라 금야 바야 으로 이르나 나는 곳상 제선인으로 잠간 득죄  
 하야 나니 죄인의 자취를 이를 곳지 아니로 디혹 조연분이 잇는 고로 제조를 삼아 화계 쓸기  
 를 시험하야 티심을 너는 조는 별하고 상원 경치를 뵈여 그 성정인 품고 하를 정하더니 이제  
 군을 보건던 전후에 일호도 마음을 변함이 업스니 진짓던 성지 효라 너오 리막바음을 도로  
 허참피하야 하노라 성선이 돈 슈왈 제조 오직 일편단심이 세상 진티를 버셔도 학하야로 부  
 구기에 촘착하야 함이 오니 엿지 다른 뜻지 잇스리 오사부의 과장하심을 불감당이로 소이  
 다도 석상연청스고 이의 삼전던 록비결을 슈며 날오디 이를 비호면 신술이 능히 건곤을  
 슈리의 출몰하야 사시를 번복하고 사히를 두루며 장산을 밧고 리니 모로 미 힘써 슈하야

네 소원을 일우라 성선이 비스 슈명하고 이의 비홀시던 디과도와 음양지 술과 무궁던 록지  
 리와 신고 묘칙을 가룻치시 슈일을 슈학하시니 일일은 도석 성선을 다리고 언셔를 강논하  
 락 무릇던 디 조화와 병셔를 가룻치며 칼쓰난 법과 활쓰난 법을 갖초 시험하야 또 적국님진  
 봉적하야 병과 엿지 할 묘칙과 힘이 밋지 못하야 디적지 못함을 가룻치며 또던 보금과 궁시  
 를 슈며 왈 칼은 절홍금이니 한번던지면 적진에 절노드러가 상장 버히기를 순식간에 하고  
 궁시난 일은 바신혜궁과 비던 전이니 능히 박리박개 잇는 적장을 맞쳐 능히 박발박중하난  
 조화잇나니 라 성선이 고두스레하고 바다 진이 고사실에 도라가 원중에서 시험하미 과연  
 도스의 이른 말과 갖트여 신이 한 조화 무궁하야 평우로 정과 신병귀졸를 일위고 궁시또  
 마음을 응하야 맞침을 님의로 하니 과연 진체에 업는 보빈 줄알이러라 병셔를 일운여가의  
 검술과 스법을 넓히고 잇다 감진법을 나히미 풍우와 정북이 진동하난지라 적시 진언을 염  
 하야 굿치더라 성선이 진인개비진인나 칭찬 왈 군의 지조 열차하야 춘추난제와 초한병  
 진이며 삼국이 병립하논시 절를 만나도 죽히동일련하야 안방정국하리니 자방공명의  
 유의자나 장상지 저되리로 다마는 시절이다 르고 몸이 너조라 능히 지조를 퍼지 못하리니  
 이가 하한 할비나 삼가조심하야 아국을 평정하고 향명을 만세에 누전하라 성선이 불감스  
 스하고 동원에 와던 셔를 강하더니 홀련이 무나리를 치며 고왈 진원티성이 모든 제조도를  
 강하며 서로 일너 왈 사뵈엿지 속직을 다려다가 큰도와 무에 병법을 가룻치시며 일절하  
 등을 서로 못지 못하게 하시니 금일은 우리모다가 셔구경하조한디 웃듬 제조청은 선니 말

여왕불가하다 스부허하시난명이업거날감히스스왕선호리오닉잠간망괴하니미  
 화선은제간에일갓난인물뿐이아니라티음정기를전슈호야더규성이빗취이니난아등  
 에볼빅아니라셔로도각각이오길이다르니스취아등으로호야금저곳에서로동신호야  
 혼잡히상견함을금호시미니성심도망영된의스를니지말나호니모다긋치고강호더니  
 이다호거늘성선이이말를듯고그영혜함을더욱사랑호더라일일은도사종용함을타성  
 선을불너닐오디이제네선가연분이다진호고진제에골물할씨를당호얏스니장제상  
 에나아가물싱각호라성선이티왈세스여초호오나제즈이갓든몸으로남아의스업을장  
 초엇지호리잇고선성왕진제범골육안등은엇지군의음양변체를알이오마난문성  
 이잇고군의엄호괴상이중이니감히일압지못호련니와혹자락미지사잇셔도삼가엄히  
 방비호고문성을받비초즈상의할지니라군의죄죄님의미진함이업고출세할때다다라  
 난지라신금과공시를가지고인간에나아가라호더라초설하부에서육미홍연등이잠을  
 셔여보니소저간고지업거늘티경호야두로어드니일몽셔찰이잇거늘급히떼여보니호  
 얏스되옥미는춤의지인이나는님의연못시짜저죽거니와너는셔름을참고공즈를보  
 호호야혹조련되살피스공즈무스장성호고요인등의피함을보와여등이긋жат취에충호  
 를효칙호라호얏거날홍연이의호왕너난소저의유탕을받즈왓스니사라봉형함이을코  
 나난소임이업스니죽어소저의향은을피시리라육미왕그티일편되이성각지말고소  
 저의신체를초즈안장호후결쳐함이올라호고일변정당에보호니공이되조호야나왔다

니초언을듯고티경호야두로초지되종적이업고후원연못가에슈혜를버셔노왔거늘급  
 히노복을지회호야연못슬치고시체를차지나이연못은바다로통호야슈제창일호고로  
 맛참니엇지못호니공이실성동곡함을마지아니호고일변의심호야가닉에참언을슈착  
 호스함을희실호야못지르고저호니삼지괴로이간호야말이니공이할릴업셔소저의져  
 슴을가져혼을부르고호부른웃스로써넙관성넙호야소저침소에영위를비설호고복제  
 를갓초며조셔제전을일루며등상호니조연병이이러외현에누어삼즈를통한호고니당  
 에즈최를얻어가스를아른체호저아니호니가중상하고유히송연호더라이러구려소저  
 의장례를일을시공이천하동원뒤에영장호고비셔과묘각을갓초와성분호기를맞치고  
 더욱참동비회호더라어시에하공조진성을이르코저져를참상하미혈혈일신니슈야비  
 통호니형용이고고호고안석이초최호야락슈광풍에쓸남갓트니공이잔잉이여겨이에  
 일너왈네이제누의를위호야죽고즈호니망모의고혼은어티의탁호며로부의철석간장  
 이두번녀리지등을엇지견티리오닉제상명리를뭇쳐물외에소유코즈호거니와네일분  
 도로부의심스를위로치아니호고여초비상함이엇지인조의되리리오장초엇지코즈호  
 난다공제황감호야돈슈체읍왕져져의참물호오미사정에참지못함을인호미나슈요궁  
 달이지련호오니엇지일사상히함을념너를과이호시리잇고차후관심호오리니야야는  
 물려호소셔공이다시금위유호고일시도즈긋것들떠나지아니케호니공즈슬허호나공  
 이보는되는감이비석을받치못호더라잇셔슈시양양호야공즈를무이너겨마즈죽여윤

시의 후를 멸코지하더라차시영화형데교주를위하야옥인가량을광구하더니승상도현의장조도연이문장지화출제하코부귀일제에제일이라영화등이힘써구하야명약하코된일성례할시혼구의성비합이비길씩업고사차참남합이척양업스되공이간예합이업고또한진싱과옥주를님의올이지아니니쥬시모조공의주의를략양치못하야혹이불안하며스스로작죄등한치아닌고로감히말를못하더라길일의덕연을기장하코신랑을마즐서옥모영풍이풍전화류갓고귀위헌양하니모든빈객이불승칭탄하코쥬시디럴하나공은깃부물모로고병이더하야상상에언와하니옥쥬와진싱을싱각하미시로이상하하더라실랑이교주를마조도라가동방화축의합환지례를일울시신부의화안월티절제하코형지영오하야도싱이빈빈왕니하야공의게반지되극하되공은쥬야스렴이적지아니하니각별흔희합이업더라도싱이공의게비알하니공이아른체아니하니도싱이고이너거혹의려하더라잇씩쥬시공조를히코조하야음식의독약으로쥬며온가지로모히하야그흉계점점더하니옥민등이스기를알고름을라공조게소저의유셔를드리고유략을일일이고하니공조시로이심흔이산비하야례음하며퍼보니하얏스되집의잇셔는극히위리하며명을보전치못할거시딴엄전의상명지등을세치고선비후스절하리니홍옥양비를다리고빨이피하라하얏더라공조간과에글를어로만저실성류체왈져스이렸듯흔계를고스스로죽어제스를이져바리도다유교여초하니장초어디로가며참아엇치부모를

비반할고찰아리죽어너시라도선비와져스로더부러비부흔죄인이되지아니미를홀가하노라양비정식왈공조이어인말숨이요천비등이소저의부락을밧조와공조를보호코조하야지우금잔명을투싱하음이니공조난빨이가중을떠나문호를보전하소서하씨문호홍망이공조일신에달였스니소비등이기자추의홀고지충을다하야갈력호종하리이다공조읍스단왈마지못하야화를피하려니와춤아엄천술하를떠나미엇지말이도라셔며스고무천하니어디로표박하리오언과에반향이아어린듯하다가이러나가만니조과셔동명션을블너슈유를설과하니명선이또흔가기를원하난지라잇듯날떠나려홀씩쳐일공의슬하에시척하야잠시를떠나지아니코안식이척척하야조로부공의안화를우러스함누척이함을금치못하니공이그심중의스모와망미를싱각함인가잔잉이너겨슬허함을긋치고위로하코안식을긋쳐이유이밧껏더니잇때홍옥명선등이경보와의건을슈습하야힝구쥬비하코야심하미일필쥬마의힝조를설어먼저나아가그옥한곳에숨어디후하야공조나오기를기다리더니공조이천스가하난심스쳐황망하야춤아슈이이지못하더니씩점점느지니마지못하야이에고왈제형님호정에서시스를창화하노라소즈를부르오니잠간물너감을고하나다공이무심이허락하니공조셔당에도라와두어줄고별시를지어척스이에세이고묘문에올나전디부인스묘에하직할시탄성오열하코집을떠나홍옥명선을다리고말게을나길을향하셔명선등다려일너왈장차어디로가고조하는노명선등이디왈강쥬심양이산슈명려하코슈도조호니강쥬가유하시려니와

추종함이 두려오니 기간이 험하사이다 공조를 허너 겨울 석을 써 여 십여 리를 가니 님의 달  
 이지 고 후야 침침하야 능히 길을 가지 못하야 림중에 숨어겨 우시와 효명에 월강하야 밥을  
 스 먹고 강류로 향할 때에 밍춘이라 빙설이 미소하 고한 풍이 능렬하야 귀중한 고를 돕더라  
 간신이 험하야 유식만에 강류를 득달하니 과연 강산이 빗나고 인물이 풍화하더라 공제  
 녀에 구쳐하야 유일도 병할식 알흔 몸이 저기나 혼듯하거 날 밤게나 와 두로 살피니 동종의  
 한디가 가잇셔 분벽 주문이 극히 화려하야 사람의 눈이 현황흔지라 주인에게 부르니 주인  
 이티 왈 양스도 덕이니이다 공조 또 무려 왈 양스도는 당금 지상으로 었지 이곳에 나려와  
 스시나뇨 아지 못하리 로다 주인이 티 왈 양스도는 괴세하연 지오리 고일조 잇셔 가지누거  
 만이 오일작스녀를 두고 늦도 록 남조 업셔 우탄하디니 남아를 어더이 제 팔구제 라어 진스  
 승을 어드려하야 날이 구하되 합당하니 업셔 사방으로 문스를 모화시스를 창화하나이다  
 공조 청과의 침음하니 명선니 고 왈 공조의 운니 장진하시니 맛당이 양부스괴를 보와 그곳  
 의아 신하시면 조흘가하나이다 공조 희화 왈니 비록 곤하나 었지 아희의 일을 험하리 오연  
 이나디스 모힌다하나 아가 보리라 하 고의 덕을 정제하 고 명선으로 더 부러 양부에나 아  
 가니 제 덕이 광장하야 진소 위고 루거 각이라 고 죽취송이 울을 하야 원림을 들녘스니 설상  
 풍경이 더욱 괴이하더라 공조 문외에서 비회하야 경치를 살피더니 홀연 안으로 서 일기  
 소동이나 오니 용모 명슈하 고 처의를 납었스니 년과 팔구제는 되어 퇴거 날 공조 불려 문왈  
 선동이 어티로 좃츠나 오며 귀티이 어티뇨 기아 왈 소아는 이 집 주인의 아조이와 존귀은

엇던 손님이 시요 공조 왈 나는 괴귀이러니 일세 석도하디가 에 일야를 지니고 조하나니  
 주인게 품하라 기아 답왈 님드러가 부친게 품하리라 하 고드러가 더니 이 옥고한 서동이 나  
 와 청하거 날 심이 당상에 중년 장조의 관을 선명하 고 서안을 의지하얏다가 동조를 보고 연  
 망이 이러마 조귀석에 좌를 정하 고 문왈 귀귀이 어티로 좃츠기에 이르시뇨 감히 존성디 명  
 를 드르물 청하노라 하성이 공슈티 왈 소심은 경성인으로 맛춤고 향에 할일이 잇셔 기리이  
 곳을 지나을 석맛참히로에 피곤하야 하쳐에서 슈일을 요병하 고 드르미티 부에서 선비를  
 사랑하 시고 문학을 숭상하 심을 듯 삼고 외람이 양모하야나 아오미오 천한 성명은 하성 위  
 라 하옵나니 주인 의 존성디 명을 드르 오릿가 주인이 답왈 나의 성명은 양중희라 세티 조  
 정에 스환하 시디니 선인니 언관에 처하 신석간 절하 시다가 락로를 만나 스이 석에 와 괴세  
 하 시미 인하야 이곳에 거한 비라 구라 여 존현례스하 난 덕형이 아니오라 만년에 동조를 어  
 더 지분이 용속지아나 하되 로 신니 병드러가 룯칠길 이 업삽기 각 별문리 장진흔 선비를 어  
 더 아조의 사장을 습고 조하되 맛당하니를 만나 지 못하니 이곳 풍물 유람하느속직문인니  
 폐가에 조로 모다 시부를 창화하난 고로 존귀이이 소문드르미로다 이제 만성이 군을 보건  
 된 었지 속직문인에게 비하리 오반다 시 품은 제 조 잇셔 고스를 박남하 미적지아나 리로다  
 성이 손스 왈 유우하난 아히 무삼식견이 잇스릿가 마난 그릿듯도로에 방황하야 오리 학  
 공을 폐하얏스니 귀부서 책을 한번 비러 묵은 눈을 밝히고 조하나이다 낭량이 더욱 깃거이  
 에 힐문할식성이 경전으로 부터 제 조빅가의 곡창 방등하야 문리민철하며 성음이 쇠락하

니양공이 번연역석하야 만구청선왕현지라 군이여 총년에 박학다지하미여 초하노감하  
 청하나니 군의 필법을 마즈 구경코즈하노라 성이 저삼스양하되 양공이 필연과화전을 비  
 여 저삼청하디 성이 부득이 제를 청하니 양공왕설상죽벽과 미화소담하야 가히 제하염적  
 하도다 공즈청과에 소슈에 취필을 잡아 경각에 회팔하니 필하에 주육이란락하코용스출  
 추난듯풍은스고하야 회두스이에 맛쳐들여 왕돌려니 지필을 더러이니 참피하도소이다  
 양공이그 신속함을 그득이여겨즈서이보실시청신소아하야 자자 주육이오편편금슈중  
 함영하야 고인의 문장을 압두하니 공이 권필에 단상왕과져며 신지라 만성이 식견이코루  
 하나이곳이문인지스의 모힌곳진고로 교영가작을적지아니되 일적이 갖든 제조를 견  
 문치못흔비라그디저학이여 초장진하니 년과몇치나하노하성이디왕제상아른저십삼  
 년이로소이다공이경왕문학이디달함은이르지말고데형이이디도록속성할줄엇지알  
 지못하겠도다 군이이제어디로하하야 누를 찾고즈하나노성이추연왕소성이팔즈고박  
 하야도실즈모하고엄부원적하시미동과천척이업난지라 지척을 찾고즈하나거쳐를모  
 로니양회치아일줄을엇지알이오지향치못하나이다양공왕비집이비록머무름적지아  
 니하나슈월를머물너미양을조호하고스제를상양하야형함이엇더하노성이스레왕우  
 연한과직을이러트후디하서니관인후덕이불승황감하야이다공이이에니당시너를불  
 니슈과를니여디접하며여종과갈를위로하며문왕일직사라온종즈잇슬듯하되엇지  
 업나노성이디왕슈삼키소동과일필말이쫓차더니하쳐에두고왔나이다이러트말삼하

여석반을이어진식하고축을이어시스를이어담논하며례악문물을창화할시하성의호  
 치주순에당당한문답이산협슈를거우러기우린듯일호도의체하노양이업스니양공이  
 불승이경하야인하야어이머물기를간청하고극진관디하야성의문벌과너외죽파를즈  
 세이무른디성이질겨즈세이이르지아닛코단식디왕소성이본디영정고하하야너외문  
 벌를빗날거시업고다일즈연아르시리이다양공이의혹하야하나쫓흔강박하야못지아  
 나러라양공이은스이품은소회잇셔육도불도하야사식이즈로밖고이니성이의아하야  
 공경문왕존공은무삼소회잇난듯하되엇지설과치아니하서나잇고한번듯즈오물청하  
 나이다양공이흔연소왕만성의소회난다른일이아니라돈아를위하야황황문장이군가  
 트니를엇고즈하야발분망식하야구하노비러나이제군을보니진실노소망이과의라머  
 무러페스에거하야아즈훈도하심을로부의갈망하난비로디불감하야능히설과치못하  
 앳거니와이제소향이만분서설하고형식이고단하야충미약골에월로발섭이부더럽지  
 아닐지라오가의머무러미돈을혼학하코스스로학공을성실이홀진딘도로공상의간관  
 전진함과갓지아니리니만일너청을쫓출진딘군의노주의식을관노함이업고안한함이  
 반석갓트리니존의하여오성이청과에나구침음하야이에스레왕소성의고혈한형석과  
 낭피한형제진설노선성의이르신비갓를지라만일불민함을허물치아니스머물고져하  
 실진딘엇지명을승순치아니릿가교학함이선성의소망을저바릴가두리나이다공이디  
 회하야만구총스하더라양공이성으로더부러후원에나아가이외홀등두고징년을담하

야슈십간정조잇스니 표묘정쇠야분벽사창이고요절승호더라냥공왈차체유벽호야  
 고요호고정치한가호니 군의쳐소삼음이엇다호노하성이추연스왈유우표박한아히이  
 곳에거흙이외람호야이다공이또한결양호고드히여중당에포진을정이고금구를갓  
 초와성을머무르게호니이에명선으로더부러고요이쳐할식냥공의외지극히이디호며  
 냥공의조문석이척을세고하성게나아와사제도를형호고슈학할식본디총명영오한  
 지라척을퍼흐번가릇치미일々이삭여드러일취월장호니가릇침이어렵지아니한지라  
 성이깃거호고사랑호되일직회통되물용납지아나정디호고은중함을경계호니문석이  
 더욱공경호고두려호야일시도게을지아니호니절노학행이로성호미하성을본받  
 고문리장진호야제류에뛰어나게되니양공부부디열호야하성을더욱관디호더라일향  
 선비제학당에모다하성의풍신지화를크게경복호야놀흔스승을추존호야제익을곳쳐  
 명현호학당이라호더라옥미홍년니당에드러가양공부부게현알호니부인이본디지  
 극히현숙호고아조스승의비조라가익호야극진이무홀호니홍육이감은호야이상호민  
 분의를초려호는지라부인니일일은이비를더호야노쥬이러듯류락호연유를못고공조  
 의근본을무르니이비단식고질거고치아니호나디강은짐작호더라하성노쥬스인니양  
 부에머무름으로신제안한호고의식의염녀업스나본부평문과업딩에안위를물나북편  
 을우러러척호망은호는슬픈회포를벗칠고지업셔노쥬누슈한심으로제월을보니더  
 라어시에하부에서공이독쳐호야아조의오기를기다리되소식이업고야심함으로오기

를기다리되영영오지아니호고침석에나아가쉬더니명묘에삼조신성호거날공이문왈  
 필아어디가오지아니호나노삼인니디왈의례시침호은줄노아랏더니이제그어디곳에  
 잇슴을아지못할소이다공이경왈벽화야심도룩잇더니녀등이님호정에서시스를창화  
 호야저를부른다호고나아가더니인호야오지아니호니로부기다리가홀노속침호지  
 라이엇진말니노삼조더욱놀나디왈소조등이과연작야에님호정에서작성호음은업삼  
 거니와벽화는야야그시침호고잇는줄아으미일적부른비업삼고나온비업스오니가장  
 의심되도소이다공이디경호야가중년의며원중별당까지두로초지되종적이업고명선  
 과홍옥양녀와옥쥬소저의가진정보와양마일팔을도적호야도쥬호얏다호난지라다시  
 디경설석호야냥노로호야금두로초지되거쳐업스니공이양던단왈니불명호야제가  
 를잘못호기로자녀혹사혹반호니런류이문히지며가변이상성호니하면목으로납어제  
 호리오삼조고왈팔방으로헛쳐차조보스이다공왈벽화는아비를반할조식이아니오홍  
 연옥미난망아의심복이오명선은류부노조라초삼인은총량다모호니빅아를쫓초디보  
 호호야위리치아니런니와팔아반다시아비초질날이잇스리라로부던성조이를뺏쳤고  
 여등이동기지정을뺏쳐가란이불가스문어타인이라무삼대함이잇스리오삼조황연디  
 창호야감하다시말을못호더라쥬씨또호벽화저의간계를피호야나간줄짐작호고공이  
 의심호난가그욕히두리더라영화셔당에가살피니벽상의시를쓰고척상리에이별셔  
 를써스니고인이남글안호며쥬순구호는호를싸르지못함을보그러호는뜻시니영화그

시를업슈이니기고별서만공의게드리니공이보미셔에왈불초즈빅화난돈슈체음고  
야々고고음나니맛춤신승이와셔과거미리를본다시이르고소지만일세상에잇서  
난춤을불거시니슈년을산간에은신스세야지익이진후출세하라함미말이이연  
호고로하직을고치못고가음나니조만의씩를어더도라와인즈지도를다호오리니부  
원야야난안심물녀음소셔음혈돈슈야하직을고호나이다호얏거날영화등이고왈  
유충한아회요마호말를신청호고가민가깃부니말을니되빅화공즈익이있다호기로피  
호얏다호더라공이초후로부터추연감회왈뉘들은슈중에익스호고야즈는거쳐를모로니  
니엇지홀노편안홀을취호리오물외에소요호고다시세상영욕에춤쳐아니리라한디  
냥즈면관돈슈고거짓던즈허치아니신다호야벼살를구호니인심세되주는거슬달게  
너기고거세를붓꽃난고로벼살를도々와합전에근시제호고던즈이인의영아함을사랑  
호스총이호시니이인니양양자득호야담권락제호는지라공이쫓지아닐출알고단식왈  
여던지망호고순던즈창호나니니엇지하날를거스려인력으로두로허리오다만던의를  
쫓츠리라호고형장을찰여건려와장노로더부러표연이강호산림에종적을부치니삼즈  
니심에깃고며거짓말이느체호거날공이로왈여등이만일호우한죽엇지골육의변이나  
리오다만불의를조허너겨담권담귀호고아비쫓슬맞지아니호니니엇지붓그러음을참  
으리오사히강산에놀아세상물욕을사절호고지기를림천에붓치리니육주의상변지후  
로잇다감이쫓지발호되오직필야를거릿세여가지못호얏더니이제필야업스니무어슬

거릿세리오여등이만일부즈련음을회복코즈호거던공명을물이쳐담리치말고슈신겸  
형호야충효를힘쓰면니도라와부즈련음이잇스련이와불연죽도라을지속이업스리니  
삼가모즈슈도호야치가하미정디돈후함을힘쓰고선제제스를레로밧드려고규를변치  
말나삼즈슈명체음왈히아등이불초무상호와디인엄교이에밧츠시니불초지죄만스  
무척이로소이다엄하에쾌하다사리심을밧삼고힘로산천에풍로를무릅쓰스형호시음  
거날불초등이엇지집에편이안쟈스리잇고형제중호나히피셔로고즈호나이다공이  
불청왈여등은부귀를탐호는뉴라엇지로부를쫓츠도로간늘을겨그며산간고초를감심  
호리오다만경계한바를저바리지말나삼즈비복무언이러니쥬씨공을상면호저일년이  
너므미공의금일출유함을듯고외당에나오니공이마즈나온연고를무른디쥬씨함누왈  
자녀상변지후로심담이여절호거날명공이하고로년로다병호신디집을바리고스묘를  
떠나정처업시발호코즈호시나잇가더욱고회지속을정치못호고가려호시면호마디  
별회를버푸지아니시니삼십년부부의일조에변한지라금일형이만만이상호니십분  
당돌호나감히나츠로이별호고겸호야나가고즈하심을테유코즈호나이다공이변석왈  
오가불형호야쥬진의난이잇스나학성이오허려현공과쥬왕의어둑기를면치못호얏나  
니니엇지즈녀를쌍망호고홀노집에안즈리오부자던윤과모자은이도다상할적에부부  
은정인들변치아니라니정전셔로몸을원치아닛거날엇지방자이나와어지러이구나노  
니중심소회를절발코자한죽부々부모상호호야유익함이업고문호에육이비경호야누



형회자할거신고로출유하야장니를보려하나니만일지아비중한출알진디그자식을히  
 흥며부자유강을알진디엇지당리틀모로리오그디형소괴상을근반하고런륜을역하니  
 너능히제가를못하고집에잇슴이붓그러온고로찰아리피세산림하야제상녕욕을스절  
 코자하나니그디무모양아를보존치못하야상실지화를일우코하면목으로날를보나노  
 그디를명정괴죄함을모로미아니로티오히려삼자의낫출보와지이부지하나이차후는  
 괴과하야제스를정별이밧들며천척를화목함을나잇슬적과갓치하와그디모자누거만  
 제잔을가져봉스를비례로호환즉지하에집주를바드리라티빅을호척코자하나니엇지부  
 호도업는지라유시올며여러말노변빅코자하거날공이소왈장부엇지설설히아녀자로  
 더부러언징하리오설과에사미를떨쳐이러나니사에도징의쳐교유이르렀시되본체가  
 니하고표연이어러나가묘에스비하고나와말게올나한번치를저기미형미빠르기별호  
 르듯하야삼조거오싸로미공이질퇴하고공우갓치모라가니라

第五回

陳世威讀書金龍寺  
 壯元郎錦衣還故鄉

陳世위가금룡사에글을일거셔  
 장원당으로고향에도라오다

차설하공이나가니삼조괴란할거시업셔근심을참요하야담권락제하미사치교만함이  
 날노심하더라지설하빅이삼조를휘척하고금편을날려호연이스희의강산으로두로노  
 라종적이아니밧천곳지업스니물을만나면일럼편주에풍범을놓히다라창파에선류하  
 고외홀만나면죽장망해로풍경을유람하야혹송념을먹으며미시를마셔심산벽쳐와스

에셔나엇지진성과괴벽화를만날가살피되조최묘연하니공이창황하야양던체루홀썩이  
 러라원리유류의죽은후그지극효도를싱각하며유시모조의간악불칙함을정히지그하  
 고불승동한하야그욱히심화이러는고로필아를만나면일을밧고조하되형용이업스  
 니너를향하야무르리오오직출공유일에산천경기를밧삼아회포를소척하며고향을망  
 각하야제스를신으미또한가화를지축할이러라엇지던의아니리오선시에진성이하소  
 저를이별하코밧게나오미소혈쳐난밧갓고그물에신코기갓트야망々이소향무적하니  
 산간암혈의방황하야스스로싱각하되니일찍드르니성복금룡산의비봉스란절이승  
 속이슬후하고문치모된다하든거시니그리갈거시라하고산로를말미암아봉사로향할  
 시스스로명도를탄식하며금룡스를추자가니제승이공경하며마자방장에드리고저식  
 을풍비이하야올이거날성이칭스왈한과직이어날여추후디하나노제승이답왈자야에  
 몽서신이하와동으로서금룡이여의주를희롱하며법당에들물보왔더니이제상공들비  
 오니비범하신용외정이소승장몽을응한지라엇지감히영접함을티만하리오성이소왈  
 출몽이허황함을괴역하야공스를광디함을감스하노라인하야이에머물미제승의후디  
 지극하니저기편안하나일럼에하소저성스안위를그욱이사럼하야미스불망하더라일  
 스은경치를완상하야독셔하는선비잇는디를추즈가니제위드리진성의상피괴이하  
 고언스정디함을공경하야성명을동하며년치를무르니성이명하야진제위라하코제  
 성으로담화할시모든선비성의문장필범이그중으듬이니처음은그고단구박함을떨시

향은 위취 아니 추존 흠모하리 오성이 심중에 설소하나 사식지 아니하리 고된 인접 화향 되말  
 삼이 유화향며 성되 과인함을 제이니 경복향 더라 성이 스중에 머무른 지록철일에 일야는  
 가는 바 업시 한 선원도 관에 가 후원으로 드러 가니 너른 화원에 기화요 초가 득훈 중한 소저  
 도의를 남고 락화를 쇠소하거 날 성이 놀나고 반겨나아가 집 슈연 비향야 정회를 펴고 저하  
 미 하소저 정식 고물 잊쳐 심분 명렬향야 오직 님 별 소락을 잊지 말나하거 날 성이 그 미물  
 함을 창양하다가 쟁치니 남가 일몽이라 그 옥이 경의 향야 문왈 하씨 동의 복식을 선원화  
 계에 깃드 리니 분명 그 몸이 죽어 혼백이 선원도 관에 놀미라 슬푸고 앓기 물이 그 지 못하니  
 진적 혼소식이 나듯 고저 머리에 전념을 쓰고 몸에 폐삼을 남고 말에 초리를 싣고 하부근 처  
 에 가 두로 도라 살피니 이곳 원방 번군의 모양이라 비록 하가 비복이 보와도 아지 못할 너라  
 일々は 다른 형인 과섯기여 각 점에서 주식을 스먹으며 드르니 점 주인 왈 하소저 죽음이라  
 연을 혼가 답왈 잊지 허언이 리오 주되 찬 왈 약갑다 어린 소저 덕형과 아름다운 용되 가셔  
 도다 정혼한 진량은 잊지나간고 다시 무삼연고 잇도 다 기인 왈 하소저 일직 병든 소문이 업  
 더니 일야 지간 에나가고 급한 병환에 급한 상스나 다하야 발서 장스 쟁지나니 그 연고를  
 잊지알이 오하거 날 성이 하소저 의 죽음이의 심이 얼른 줄알고 경심 차악하야 인적이적  
 기를 가다려 주모의 압해나아가 주체를 후이 주고 짐짓은 근이 말하야 연단에 문왈 잠간 드  
 르니 주인이 그 여인으로 슈작하노비 참담코 그 뜻시 슈상하야 들이니 그 곡절을 어더듯고  
 저하노라 주모 왈 초는 제상이 변논이라 각의 알은 미 무익하되 무름이 천근하니 이르리라

앓가 날과 말하든녀 인은 냥가 녀조로 하스 마되 노예려니 하사 마원 비유부인은 자식성덕  
 이 무쌍하시고 계비 유부인은 삼조 일녀 두고 유부인은 일조 일녀 둘두고 괴세하니 공조 남  
 덕어렸는 지라 하사 마 각 별 무익하야 길너 소저의 나이 십삼에 식덕이 겸비함으로 하스 마  
 옥인 군조를 갈히여 소저의 덕을 저바리지 말고 저하시더니 슈년 전에 하스 마 하남 관찰스  
 를나가서 형 주싸히서 한결 기하노 슈조를 다려오니 풍진 화절인 한지라 하로야 괴이 최  
 중하야 유부인 소성녀로 정혼하야 가산을 길우려 성가하야 줄 뜻시 잇는 고로 유부인 모조  
 남미시괴하야 무죄 혼진량을 위여하고 박티심하더니 슈월에 전진량이 탈신도 주하고 그  
 소저 죽다하니 잊지 앓갑지 아니 리오야는 소공조를 위로하고 상셔에 언와하야 너정애  
 발차최 이름이 었다하더이다 진성이 경야 차악하나 강잉하야 가로티 썩감이 못나니 주모  
 는 하부의 었던 스람이 완덕이 리저서 이아나 노티 왈 나는 곳하야 하부로 간첩지 아니 되질  
 녀그노엔고로 지상이 규문이 엄속하되 자연 질여로 말미암아 드렸노라 진량의 마음이 산  
 논 중주모의 명백한 말을 드르미 경황 실도하고 심지저 상하니 히로하든 덩회에 당하나다  
 름업서 자연 면여도 식함을 써 닳지 못하야 양구 목목하니 주되고 히이 너겨 문왈 관인니 본  
 티 하사 마 집을 아든가 잊지 하소저 의 참상을 들고 저티 도록 괴식이 비황하나 노성이 실테  
 함을 써다라 죽시 나 빛출 못쳐 강잉 답소 왈 하방스 랑이 었지 경스 지상 덕을 알이 오만는 본  
 티 마음 이 연약 흐지라 하소저 그리 괴극한가 인으로 명이 박하야 비명요 절하니 드르미  
 위하야 앓기고 잔잉하야 석우에 낮타나니 주인니 고이여 기도다 주모역서 웃고 왈 하소저

의식광성덕으로비명요절하니엇지참혹자아니리오듯나니마다참석하니관인의인  
 자한마음에경안함이무삼괴이하리오이러나저러나우리게간섭지아니이남의말하야  
 무엇하리오속어에낫말은식이가듯고밤말은취가듯는다하니만일드르이잇스면조치아  
 일거시오저는당제권신이오위제혁혁하고우리는잔미인이니큰일이날거시오또언논  
 이쫓치아이니관인은그북치말를다시말나진성이점두응락하니심담이바아지는듯하  
 야심하에헤오디하소저님의죽고빅화무거쳐하며하공이멀이나갓다하니하가의가세  
 주씨모즈에게잇는지라영화등이니불원지지에잇는줄알면결단코희하야멸구하려하  
 리니남에하씨의사성이결단하얏스니다시나아가학문을힘써문과를응하야죄문을  
 현달하고금의환향하야조선을영현하리라하씨비록슈빙가인으로졸연이함원치스함  
 이인심에참연하니디장부엇지일녀즈를위하야이러든분황하야체위를손상하리오이  
 렷듯헤아리미본디심지만근의무게와하히의향이라다시심우에거릿셈이업고석우  
 히낫타남이업스나오히려심사질겁지아니하고자그랄신할씨에한가지로나오지못함  
 을그욕히차탄하야이날종일도록심혼을정치못하고셔반을먹지못하니주인디고히여  
 겨무르되관인이불평하야밥을먹지아니나노성이답왈니씨씨현증이잇서속병이발하  
 면밥을먹지못하니다오날정히예서자고명일고향에가려하니주인은형허병드러  
 이제한갓염여말나하고각자는방을정하고머물시종야전전하야잠을일우지못하고명  
 조에쇼반을먹고점을떠나비룡산금룡사의도라와제승을보니로소일녀왈어디를그리

슈이단어오시나잇고성왕맛참성서에차즈볼스람이잇서차즈보고고향소식을못고즈  
 갓더니그스람이먼저나갓다하미못보고도라왔노라로소고왕부절업시멀이노지말고  
 독서나부즈런니하야룡문에오르시면금의옥디로고향에도라가선세를현영하고천척  
 을뉴광하면이디장부의쾌활한비라죽죽히남의게무러소식을드러무엇하리오진성이  
 마음이번는하야함소왕로장의의논이동달하다하고인하야즈기머무든서지에도라와  
 주야독서하기를부즈런니하야일각도게오르지아니하사서삼경과제즈빅가의무불  
 동지라호활호문장은한나라티스런을압두하고광디한제략은운주유악의결승천리하  
 야호연이우주에광부하야사히를쓰러칠제략이잇는지라사중에서모든선비우러러공  
 경하고흠모하야놓흔스승갓치하고사중제이니반다시룡문에올나디저인이되출알고  
 무릇봉승접디하미극진치아니미업스니진성이녀시제인의후정을감스하야후에크게  
 님신양명하면크게갑홀삿시잇더라차년츄에도딩에서설장학인하노도령을사히에반  
 포하거날진성이깃거하나일즈오히려디물또한을볼락하야강호에유락하노두어  
 사를다리고산천을유람하야지기를소창하고점하야하빅의종적을차즈며빅화의즈  
 최를알고즈하야약간히리를슈습하야모든유적을쫓출시잇는중춘이라일과회창하  
 고춘경이화려하야쳐쳐에독수는청산을드리온듯만첩청산의일만화초성기하니규수  
 청산이홍빅단청을닷도와자랑하고진금이수와비조황잉이며원학이상화하며미류이  
 총암절벽에노닐시뱃사이에왕리하야보암적하니문인지즈의시흥이발하더라진성이

도처에 무한홍승경을 더하여 시흥이 발연하니 시를 지으며 부를 읊혀 산수를 관람함에 경  
 기 더욱 광활하고 기운이 더욱 싸혀나 도로에 산천을 유람하미 슈월에 삼춘이 지나나 다 시  
 오호에 비를 띄고 증유하야 동정철벽리에 비를 띄고 악양루고 소덕의 황능묘를 다 차지니  
 무한홍승경이 일로 응접기 어렵고 길흔 산슈와 티관사찰총락에 능히 하소서 의성스 존망  
 을 무르되 저서 처 못하교 하공부즈의 쇼문도 듯지 못하미 심스에 창양함을 이괴지 못하야  
 을 스불락하니 더기 하공부즈와 진성이 피츄유익으로 만나 미무어시어 려오리 오만는 나  
 합이 씨잇고 조물이 희스하기로 조히녀기 미러라 진성이 또한 슈일을 남모로 논은 우만복  
 하니 경치를 더하야 음영부시하다가 도홀년심괴저상하니 가용이 슈뢰하교 광미슈집함  
 을 면치 못하니 모든 병형이 고히이녀기 더러이 려듯도로에 방황하야 얼푸시춘하가지나  
 니정이 초추라 청풍이 서리하교 슈국이 단풍에 누르고저하니 바야으로 파괴며 지아닌 줄  
 세다라 일행제인이 행등을 저축하야 금룡스에 도라오니 로스외제승이 마즈그스이도로  
 구치함을 위로하교 도쳐경물에 가려함을 못고과일이 다스름을 고하야 담논이 참차하니  
 이러 무러과거 님바함미성이 문방스우를 갖초와과장에나아갈시심하에 싱각하되근너  
 하공이 조정에 잇지아니하교 영화등삼형데 반다시사오나온어미와 몸슬누의로더부러  
 동심하야나에 등과 님신함을 아쳐녀길거시저루터라 루한음행이 낮타날가하야아모  
 구용홍음간계로 날을 조딩에 업시하교 또성명에도 망하야 별구하야 제누의 음희한누행  
 을 엄호려할거시니 비록 더장부의 행스불스하나 원도로 잠간 일음을 밧고와 불인에 무리

를속이리라하교 스로성명을 못쳐진제위라하교과장에나아가나라 화설만제황대성  
 랑의이윤과고종의부열를 씌구미가나로더성군의량제싸실마음이 칠년지한에운에바  
 라심갓트사과거를비설하야던하구주와심삼성군현에곳々지옥지를나리와현량방정  
 지스를구하실쉬츄팔월삼순일에상이황극전에보발과호모옥터를갓초와구룡금상에  
 안즈시니 천척고루에 팔방의옥옥하교 산호구와수정념에삼십총옥계영롱한티문무빅  
 관이엄괴엄용하교금관옥피요요징정하며 좌우반열이정々제제하니 흡연이 요런순일  
 에남호전옛의상이도라온듯런식이청고하교 일광이명료하야우주를말키니가히인슈  
 의특이성스를하날이러엇시는듯하더라인시초에글제를거르시고스시말에수축하게  
 하시니막비런성디져라스마천의문장과도즈건의철보시하던수단이아닐진된성편하  
 기어려오니그진짓문장이니면가히시험치못할지라만장다스심흔이저상하야무사무  
 려하더라이날진성이츄포도복으로혁터를도고초리를신고과구를메고장옥에드니  
 그가온디공즈왕손이며부귀즈제는저마다향춘궁유로의복제도추루함을우히너겨왈  
 저모양의무삼글제죄잇스리오닝안묘시하니진성이심하에우이너겨제무리에셋지아  
 니하교점심행담을메고한무리궁스모힌곳에가섯겨안지니제스셔로가듯쳐치소왈이  
 러한행식이무삼죄조잇스리오하야각각시전을피고먹을갈며봉모필을떨쳐작성할시  
 어지러이읍쥬리며귀귀이뜻적여성편하느거동이또한가소러라진성이저의무례한말  
 과웃는경식을보고실소하며글자의스를아이니웃던무리도라보고서로가듯쳐왈상풍

피속이하날련짜도모로는거시총명선비체호고남의밥술이나비러먹고구경왔도다글  
 제나린지오리고시각이며지아닌디저리나잠공부만호고못하는글을하는데호고드러  
 왔다가무류이되방호년셀보게되면도로허우리붓그림도다진성이츠마우음을참지  
 못호고기지크게호며월렬위는남의분별말고시각이느져가나어셔글이나지어받치  
 라부절업시남을웃다가헛도이락방호리나아녀립스라년이나제위남우을출만알고  
 옛말들듯지못호얏도다자고로궁달이유수호고회복이저련호나이윤이받츛갈고부열  
 이담싸앗스며위슈로옹이팔십에봉왕호고회음이괴식어표모호며슈육어파하호얏스  
 니가이귀지교인치못할지라제유는나의말명심호라제위청과에저한낮궁유문득말  
 삼이쾌활호고의리명숙함을보미그러호야도글즈는호는가의심호야셔로도라보고다  
 시말를아니호거날성이제유의짓는글를보니불과평평한문조로티티뜻져겨유반은  
 지으니도잇고반도못지은이도잇거날진성이그제야이러안조명지를써야필연을나와  
 구름이지나는듯호야휘죄는만흔붓뜻출보지못호고다만붓티를두루치는곳마다죽육  
 이산산호고룡사셔리는듯호야견조로호야금정신이활달황홀호야밋쳐쳐보지못할  
 너라술식에쓰기를막고봉피호기를다호미열히세고받치려가는지라제스그추도궁성  
 인줄업슈이너겘더니그신속한지조를크게늘리며저희는오히려다못췌스니의사조못  
 방황호야다시결을의스를성의치못호고총망이쓰노라호더니겨우쓰기를다호미진성  
 이어너스이에글를받치고도라와점심을먹으니모다상고실식호고반다시무삼변화잇

는가의심호더라만장다스구름되듯호야스나문장고하와우절이천만총이라글를지을  
 시겨오성편호는조는만호나다용용무지호야평평한문조와능출한시스며교활한의씨  
 장체오학조는아조학박이블민호야한귀성편을일우지못호나사방궁유와로스슈유다  
 고기를숙여쓰덕이며후양양이좌우를고면호며남의거동도살피고후의스아조삭막호  
 야황미를집푸리고님을모와번되함을마지아이니그경상이또한가관이라진성이심이  
 의실소함을마지아니호며두로비회호야연무청에다스르니무수한무관이또한그슈천  
 만이라빅보박게관역을제우고영웅장부와소년장스저마다청년록포로궁시를슈습호  
 야용무를비양호며활를다리며살를먹여지도를결우며후맛치나니도잇고후못맛쳐는  
 이도잇서만인침시에무식함이만흔지라진성이이유히관광호다가한곳에나아가중인  
 을디호야월성은하방스람으로맛츛황성에드러와과장을당호니한번렬위의우음을  
 돕고저시부되본시궁시업는지라이렷듯락막호오니바라건딘열위는한씩궁시를빌이  
 실진디사장에나아가시힘코조호나당초에교분이업스옵고렬위게감히발설치못호  
 옴더니이제부득불간청호옵나이다제인이흔반보미소년남조신기동탕호고말삼이온  
 순한지라모다의론호고궁시를빌이거날성이총스호고도궁과비전을먹여다리니살이  
 별호르듯호야삼시를연중호니좌우방관이손벽쳐총찬호는소리진동호며감시관이  
 괴를두루고북을울이며좌우제성호되무과장원이라호고성명을무른죽진성이총망이  
 궁시를던지고만인총중에몸을다라오다가문득드르니또문과장원진제위라호고소

리진동하거날성이기연이유게하에나아가국공추진하니전々훈신장과당々훈의상이  
 능능쇄락하야호명창련에순풍만능봉이오궁학에구름어든룡이러라얼골은빅옥조락  
 흔듯하고눈섭은강산슈기를씩씩스며일쌍명목은깃별갓고잔나비팔에일의허리오손  
 을드리워물음흘지나이진짓일티영결이오당제티인이라천전행보에룡이씩로며법이  
 즈는듯하야유폐하에진퇴팔비하고고두사은한디만조빅관이안니총찬하리업더라상  
 이청옥을여러가라스티청음이특이훈문장과특출한렬스를엇고저하얏더니금일보니  
 겸하야장상지지를어덧스니짐이주석지신을만났도다하시고련안니불승경동하스특  
 별이던에을여게화청삼을주시고옥티를상스하신후옥음이전々총찬하스주문의여상  
 과소렬의와룡어듬갓치비기시며차々회원담화를부르실시연무청으로죽츠무과방  
 이나미장원이또스련안에진제위라련안니더옥흔동하사문무방를맞츠브르신후천제  
 위를다시화계준마를주시문무장원랑에특총을나리오시니모든섭들이감히바라지못  
 하더라진장원니황공스은하며자기진세를다시성각하미의가지쳐와동과지천이업는  
 지라쳐창한회포와은은한비회추파에풍낭을동함갓더라련폐중관이어연을과한후에  
 문무빅관이분분퇴조하며진장원이추연탄왈신진이감히선성이시리를밧드지못할이  
 로소이다소성은일기공민으로의가지락과동과지천니업스미여궁인무소귀어날의람  
 이련은을남스와문무장원을주시니존문하을고지업는지라무삼흥치잇스리오그러무  
 로존위회회를밧드지못하리로소이다제신이청과에무불하루하고도로혀위로하야도

라보니니장원이제공후의를스레하고위의를거나려사쳐로도라오니주인니만만치하  
 하고주육을나와외일변위로하더라삼일유과한후에련폐에스은하고속비하온티상이  
 인견하스특지를나리와중셔스인병부시랑을하이스고장원각을스급하시며노비전결  
 를주시니장원이련은을속스하고다시슈월말미를어더소분을청하니상이륜허하시고  
 수이도라와국스를다사리라하시고본읍리수를명하야장원의영천소분하는물역을도  
 으라하시니각읍이진동하야진시랑의위의이르는곳마다설년관디하며지경영송하더  
 라일노무사이형하야고향에이르니본읍티슈진장원이환향하는선문이이르미심리에  
 나와마즈공경함이티인을의심갓고향리에거인들이사문을듯고티경하며면니와마즈  
 일촌이만이떼지어긋볼시켜진성이석년에스즈무천하야추훈의관에살를갈리오지못  
 하고삼순구식에구복을체오지못하니화려한공신이변하야귀형이되얏스미중안이비  
 쇼하더니이제문장이발월하야장원으로도다오는줄를듯고그위의를구경하미은안빅  
 마에금슈청삼이선명하고청홍쌍기외어원풍악이현련하며하리추종이무슈이옹위하  
 야나야오니진시랑이풍최최락하야관광지칭찬하더라장원이지나는곳마다본읍소산  
 레물이무슈하나장원이지과락락하야밧지아니며각도명기단장을치레하고칠현금빛  
 거아릿다이너리하며장원의도라봄을영구하며풍신과저화를우러러일야침석을용납  
 기를갈망하나시랑의고안이무산을보고요지에길드러비록음악찰여스나교주는련하  
 국석이라또다시하소서외만고무쌍한석모지덕의빛남과성즈지풍을보왔스니져야화

림의 송구영신하는 무리를 눈이나 들며 요음정회를 유의하리요 다만 춘풍화가 그득하야  
희석담논이 풍성하며 잔이 이르미 사양치 아니하고 말슴이 도도하고 담논이 창히 연파를  
거우르는데다가 도만 일창녀의 무리 아릿다 이루며 공교한 티도 절묘하야 정을 도도  
며 말삼이 히얏치면 문득씩々한 괴상이 동련하일 것하야 각 읍 유현이 그 단하야 감히 미석  
년희를 권치 못하고 제창이 락담하야 교리를 발외지 못하야 함누되거하니 시랑이 심이 실  
소함을 마지 아니라 장원이 선산에 힘하니 약간 노복이 남았다 가 주인이 영귀히 도라오  
을듯고 나와 마저 산에 이르니 수축지 아닌지 오린지라 분묘되락하야 비양이 것출고 압박  
이여 휘글혈을 삼앗스니 석물이 되후하야 남지업는 고총이라 저 죽어 도라오지 못하든  
들선계구묘와 부모 분상이 장초님지업는 무주고 혼이 되야 춘추로 향화일 비를 무어스로  
영벽을 위로하며 형극을 뒤슈습하리 오호저의 풍슈지동이 마디를 생각하야 눈물이 방  
탕하며 성음이 오열하야 구천 영벽이 감동할듯 만일 진조스 부부의 지련지령이 아름이 잇  
스면 그 정성을 늦길 듯 석목이 빗출감동하야 춘련이 묵묵하고 송풍이 슬슬하야 묵념이 분  
분하며 만산과 암과 괴수한 경물이 더욱 수회를 돕는 지라 종일 호곡하야 도라오기를 자연  
이즈니 무수비리 민망하야 락누하나 감히 강권치 못하니 노복등이 비단위로 하야 석양이  
기울미마야 호로우름을 굶치고 본관을 스레 활복은 하방 궁유로 요행련은 을 남스와 부귀  
영총이 분의외에 과하와 선계구묘와 분묘를 수축코저하니 공력과 저벽이 호되 홀지라 현  
관은 일비지력을 도음을 앗기 지 말르쇼서 지부와 지현등이 일시에 연성응축하야 왈이는

비록 이르지 아니하사나 소관등이 지극히 존명을 봉송하리이다 시랑이 칭스하더라이 육  
고일모하미제현관이 명일다시움을 일괄고 도라가니 시랑이 모든 하리를 불너 쉬라하코  
약간 노복을 거나려 셔스를 담화할시 잇셔하여 져든 노복등이 진상공이 문무장원으로써  
살을 도도와 영화로 이도라오는 선성을 늦고 모혀와 하례하니 시랑이 추연 탄식 왈 님만  
일석일의 풍상간익에 죽엇든 들금일 영화어디잇스며 선제 분묘를 뒤수축하리 오셔년에  
집을 다실화하얏스니 이제 맛당이 서로 창건하야 전일과 갓치하코 사시 향화를 밧들게하  
리라 하니 노복등이 깃거질기며 석상을 이니시랑 왈 처처에 나르미 축쳐감창이 오거안  
비절이라 게우두어 번하저하코 상을 물인후로 복동의 경상을 보니 주리물 견리지 못하야  
얼골이 수척하며 의복이 남누하야 살을 능히 가리지 못하얏스니 마음에 크게 비창하코 불  
상이너 거각 각좌를 주어안드라하코 노주지간 만상고 초를 셔로이르며 금번 문무장원하  
고 버살을 도도와 고향에 영화로 이소분함을 설과하니 모든 비복등이 환열하며 일변 슬허  
왈 소복등이 상공이 한번 집을 실화하사시고 홀련이 나가시니 다시 저최와 사성을 아지 못하  
옵는 중싱계 무로하와 고향이 심하야 동서분주하며 제일을 보노니 능히 결을 하야 여러  
분상 제절을 수호치 못하와 점점 퇴비파상하오며 춘추 향화적막하야 문득 무주고 혼됨을  
생각하오니 슬푸고 비회하야 스스로 탄식하코 세월을 보노니 어니 날공조의 생각에  
업스리 오지는 바 천만고성을 어이다 착양하리잇고 더욱 공조의 귀례야 모곳에 유락하신  
줄모로와 동유상디하온 주슬워아닐 날이 업더니 오날이 렷듯 영귀하스금의 환향하사니

이느천만고에회한경스라소인등이우러러선로야의후스빛나물영화호옵고버거소  
 인등이괴로움을잇고일성이호화할바를만행하니다설파에불승오열하야지는바를  
 늦기고목금영화를혹소혹비하니성이비복등에말들듯고역시감회하더라별너를말하  
 야추야괴로이길몰쳐다지못하더라명조에티수천이와셔문안하고레단을드리미무수  
 하되장원이불수하고겨우십분에일을머무르나각읍지현의허다물건이구산갓더라장  
 원이필박을다훗터노복에의복을일위헌웃슬벗기고셔웃슬납히며금은필박과온갓곡  
 식이고에가득하니노복이불승티회하야뛰놀며질겨전일저의고고할셔헌옷과밥먹이  
 든유를다후이갑흐니일동이깃거하더라본관으로산역과구와물역을낫낫치성비하야  
 덕후하니장원이깃거역스를시작할식벽물이아나가준거시업는지라슈월이못하야산  
 역을맛치니황폐하얏든고분이일시의놈고광활하야완연이공후의분상과다르지아나  
 하더라장원이덕회하야공장을중상하고제전을갓초와선제이하로설제할시제문스의  
 심이간절하야효의출인하고정성이지극하니절절이관곡한지라보는사람이감동하며  
 듯는지탄복지아나리업더라이러무러말미과한이지나고서세중동이러일과한임하고  
 설풍이능렬하니능히도로형녀을슈이이루지못하더니문득황식이르러과한함을척하  
 시며쌀이도라오라하시니시랑이불승황공하야망월청죄하고황스를조츠발행할시노  
 복등을분부하야묘소를되셔티만치말나하고전담미곡를만히쥬어성계를후이하고발  
 행하니선산을떠나는회포더욱슬푸더라형하야일로에밋쳐는시세남월를당하야풍설

이 지리하고한괴루골하니시랑이신괴죽츠즈못불평하니능히지류치못하고선년나박  
 두하니도중의셔절스를폐치못할지라축행하야계동념간의황스와흔가지로결하에스  
 은하나던즈반기시고깃거왕반나더덕물척하시니시랑이고두청죄왈초야의미천하온  
 궁성이던은을중이입스와빅스다분하온지라복이손할가두리나이다신이고향을떠나  
 온지오리와선조와부모모분묘되락하온고로형이던은을힘납스와일신이현달하오니선  
 제구묘를슈축하와즈연천연제월하고말미과한이되오니불충지죄를청하나이다상이  
 드르시고효의를감동하스릉안을곳치시고도로허위로하스왈자교로효직충이라하니  
 경에성효여차하니님의부모구물하야인즈의효를퍼지못하고사이의라혈마엇지하  
 리오모로미지효로써충성을받고와니근심기물아비갓치하라짐이또경복을황즈에  
 다름이업게하리라시랑이상교를듯좁고불승감하야감누여우하더라시랑이종일답  
 전에피셔고금홍망과역덕제왕의치정을고하야담화하기를긋치미상이육비의향운을  
 스하서고치스하시니존중하시미제신중의웃듬이라차시화영화동이던전에서진시  
 랑의성충을아차하야히할뜻시밍동하나제진신명스로드러난허물이업고상이즈못  
 충우하시니일시의덜기어려온지라고옥이혜오덕차이니조정의오리쓰인즉도정을  
 업누를지라우리괴운을퍼지못하고상총과권제다져놈의게아일지라저는불과하향궁  
 유로무세하거날우리는티가후문의문호혁하하고형제당하한지라저궁성이불과적은  
 글즈로감히룡광을놓히맛치고또한드르무예로무과를응하야상총을어더우리를압두



하니 엇지 분치아 니리오 소인의 옥곡한혜아림과 암한싱각이 한갓함안하기의 만골물하  
 니저진제위전일제집문하의손으로저의 환을피하야도망하든세익인줄은분의도싱  
 각지아니하고또한용모갓름을고히너기나그일홈이다르고진제익이한갓장하의독셔  
 하는문소로아랏지문무점전하든줄은모로던고로의심이도라가지아니하니저의아  
 득하고어두음이이갓트니가히우음적하더라영화등이진시량을위은일업서삼기고즈  
 하나문득궁극한계교를니여히코즈하논고로룡던의셔지극이첨유하야진제위문무지  
 저를찬양하니상이삼간의홍심을모로시고흔연답왈경의주소로중이쓰리라하시니  
 것호로는성의맛당하심을주소나니심의난살히지심이가득하니량이엇지져여호와사  
 리의무리갓튼삼간의심정을모로리오심하의분히하나만약오리쇼정간의단니다가난  
 도로혀저의희를납을가하야자기먼저양명스직하고소인의희를피하리라하야석양의  
 퇴조하야부중에도라오니다만니외비복등이영접할뿐이라라구려세환하니진사  
 랑이번민하야침식이불안한지라스스로일계를싱각하고자탄왈연화등이조정에잇서  
 군즈를비척하고간당을쳐결하야성상을충성으로돕지안하고직스를살피지아니하며  
 회퇴만행하고추호도정도를헿치아니하니반다시그헿합이오리지아닐지라자기먼저  
 병랄하신하야소인의희를면하리라하고상표하되신이본디한스궁민으로외람이던  
 은을납스와작년소분시에풍로에발섭하야신병이실여일신이무류하오니원컨디폐하  
 는슈년말미를주소요이양병케하시면이는하혹지은이라병이쾌차하온후룡답하에

피서성은을만분지일이나갑스를가하나이다하니상이진제위의사적표를보시고불쾌  
 하스침음하신티영화등이던의를숫치고암희하야싱각하되초인의벼살를못져탈하고  
 초초헿계하리라하고또한병제나홀지라도요정에쓰이지못하리라하야이의일반  
 간당이일시에진제위의벼살를아자가라주소심을주소티상이또한영화등을충우하시  
 논고로그말를쫓츠스벼살를가라주소어의와약음을스송하스그병을보게하시니시  
 랑이황은을더욱갑축하야하더라

第六回

河三奸伏誅世伯執法  
梁小姐溺水百華用權

하삼간이버이논디업드리디세법이법을잡고  
양소저가물에세지미법화가권을쓰다

잇셔진제위고요이빈익을사절하고약리를들이쳐티의를흔연관디왈학성이스스로조  
 리할수있나니엇지티의를번거로이하리오다만여초여초봉명하라하야당스에되하스  
 시랑이고요이쳐하야세스를헤아리더라어시에영화등이부친이출뉴한후로과단이업  
 셔넛집을바리고성년에드러왔더니종화마즈등과하야옥당명스되야권세를날노혁혁한  
 지라삼인니참남스치하며첨유군상하야천현인원소인하니도야그위세를두려함구하  
 나영화등은오히려죽지못하야현인군즈를암히고자하나져진시량은던즈즈못총우하  
 시고도야괴경하니슈히헿기어려오니도정에오리잇스면우리무리괴운을피지못하고  
 상총과위권니다초인의게아인즉저난불과혈혈궁유로적은글귀와좀무저를가져던헿  
 으로룡문애올나상총을납고우리난디가훈문의혁々한형제와당당장종으로저의절  
 제함을바드미엇지분치아니리오부디이놈을도정에영々업시하리라하니소인의오곡

한해아림과암스한마음이 다만함인하기에만골물하여져진제위전일제집문하격으로  
 저의환을피하여모야의도유한진제빅인줄꿈의나싱각하리오그용모의희하나일흠이  
 다르고제빅은한갓창하의록々한선비로아랏스니문무겸전함은모로노고로의심이밋  
 지아년소인의암미함이가히우슴을죽흔지라공연이미오미삼키고즈한계교를그으미  
 상전의진제위의문무지지를찬양하여쥬석지신이오남모지저라상이상소의흥모를모  
 로시고흔연왕진제위의지조는경언나칭선하나집이중히너가나니경등의쥬스덕로그  
 병이났기를가다려반다시중용하리라하시니영화등이성교맛당함을쥬하더라영화  
 등이날노천금을흐트며화되를형하여후궁을쳐결하니왕조고림은상의후비제남이라  
 후비정궁위를찬랄할뜻이이사나성의치못하더니영화등이환관여의와고림으로체결  
 하여마음이상합하시셔로심스를일너디사를일워든공등이일비지력을도으라영화등  
 이디희하여계교를가룟쳐왕우리계교를쫓츠면디스일우후아등이진충하여런의를어  
 더정궁에모렴한죽이는우리공이제일되리라이에고염이디희하여총네지물을정궁으  
 로침을할시정히빅요를아참하여영화등을찬양하며진시랑총현직신을온가지로참소  
 하여업슨죄를모함하니상이후궁과환관의간참을드러게시더니소장을보시고반분의  
 후궁실시키고렴영화등이가지로련의를요후궁게하느니라진제위이기미를침자고동히  
 하여제현을디하여왕이제영화등의소계심이망나하야조정현요를무고히모함하여필  
 경은종말에역명을면치못하리니신조되여국록을먹고군상이그르심을안조보리오니

당당이영화등의소계를축빅하리라하디제공이묵々무언이어날진제위분연왕공등의  
 소표를쫓치아니라하면니당당이독당하리라하디제인이그직절충의를감동참피하여  
 일시의스죄하고이에한가지로연명상소를지을서영화등의지산을제々이거우르니피  
 신평의원역함을족빅하시사례직절하고언스병혁하더라표를답전에을일시모다결  
 하에디죄하얏더라상이보시고디로하스디신논회한죄를못고즈하시니만조다종화등  
 에악심을두려할구하더니일계를보고드디여진제위의소계당연하고영화등의죄상이  
 적실함을닷도와고달하니상이유예미결하시거날군신이쥬왕육당에죄논이여츠하오  
 니맛당이영화등의무리를각々하옥하시고그원정을바다양정을저서이살피스언논이  
 명빅한후쳐결하심이맛당하시니이다상이의윤하스영화는덩위에나리시고진시랑은  
 금오부어나리하시니영화등이적시원정하되의문이찬논하고언스공교하야교스함이  
 만코심히명빅지아닛코진제위는옥에잇서상소하미언간고지하니언스겨절하고근본  
 이명빅하여만조중신의말과한갈트니상이본디진제위의총직함을총이하시논코로  
 세다르심이만흐시더니홀련황후옥테흠화하스중제만분위를하시니궁중상하황황하  
 고성심이크게번되하스옥스를갈하시다츠시황후흔미하신중상하벽간으로무슈귀졸  
 이검극을가지고나와침노하니놀나스즈로막하시니상이근심하스그연교를무르시니  
 휘곡절을고하신티상이고히이너기스복술를불너점복케하시니궁니진경하야무복을  
 불너점복한죽복설이그와왕요일이흥기하오니그곳즐슈렴하소서하시죄우통상하와죄

우벽간을 두로 뒤진 즉 과연 무슈한 요예 지물을 어더니니 축스의 허다 피설이 여 회황후를  
 도모하는 글이라상이 디로한 스여 회를 극형 엄문한 신디니시고 령과 영회형제 등이 동심  
 체결하여 여 초여 초하라도 모함음이 오신이 홀노녀 궁을 범함이 아니로 소이다상이 바야  
 흐로 영회 등의 디역을 명각하시고련로 진첩한 스여 회등을 엄형 국문한 사초스를 다각々  
 바드 신후 하옥하시고 진시랑의 총의 직절을 칭찬하시고 즉지로 형부상서를 제슈한 사즉  
 시입시로 부르시고 영회등을 올여 전에 천국하시니 진시랑이 이 소식을 듣고 앙던 탄왈츠  
 인등이 여러 지화를 남도다 하씨는 맛참신인이라 다 전두길흉을 이갓치 아랏스니 엇지괴  
 득지아나리오 연이나 당년의 하씨니게 부락하더니 곳하여니 손의 결단함이 되리니 디하  
 의셔도로 허날을 원망하시로 다하고 즉시니시를 좃츠 쥬할하에 스은하고 버살을 스양왈  
 국록지신이 되야 남군을 간하고 오미신지의 직분이라 엇지 공되야 중작을 밧즈오릿가이  
 는신의 원이 아니로 소이다복망패하는 성의로 환슈한 소셔상이 전후 꼭절을 니르시고 총  
 성을 감탄하시며 맛참니 불륜하시니 허릴업서 스은하고 오미상이 회형하시며 영회등을  
 극형 엄문하시나 죽기로 복초치아나니 그형벌의 참혹함이 참불린 건이러라련안니 불안  
 한사 죄인을 형부에나리외다시 무르라하시니 진상셔 찬왈츠 인등이니 손에서 죽은니  
 보음이 소소하고 다함며 심히 절겨아나나마 지못하여 형부안문에 죄의를 베풀고 죄인등  
 을 엄형추문할시 위풍이 능능하고 호령이 서리갓튼 지라나 줄이 막감양시하고 불승전를  
 하여 형벌을 펴니 선혈이 림리하고 괴육이 후달하니 영회 등이 일적 남신하여 금관옥띠로

고거스마와 추동이 전초 후응하여 만조를 압두하는 교만과 금의육식을 염어하는 처로  
 중형을 누츠 남으미 골부 피락하여 봉두귀형이 되얏스니 당상당하참아보지 못하여 낫출  
 가리오더라 진상셔 엄문왈여 등이 맛참니 디역을 범하얏스니 님의 간상을 가리오지 못할  
 지라바로 직초하고 괴로움을 밧지 말나나는 옛날그디의 집에서 화변을 당하는 진제벽이  
 니네의 등이 괴역하시나 영회 등이 초언을 드르미 심간이 터지는 듯양시 양구에 왈그디는  
 옛날우리가 장의게 슈은함을 칭각하여 작죄져지아나나 잔명을 늦추라 상셔 악연왈너의  
 스람이 여든남으로 엇지저런 말을 하나노너의 부친의게 슈은함은 산고히 밧하시네의형  
 제는 엇지디 접하고 국스의 스심을 행한 비아니오 왕법은 스스업는니 당초시하여 부르지  
 영인들 엇지 구하시리오 허물며 디역부도를 신즈되여 가히 구함이 올흐라니 비록 슈은하얏  
 스나 은원이 상반하얏스니 옛말들이 르지 말나이 제감슈지 죄하며 엇지 어니 낫츠로 명을  
 벌이오 남이 영스언 정참아 골과 하라 용열하도다 디 엇지 황명을 밧즈와 사은을 쓰리오 삼  
 인이 디참하여 분괴 엄디하시니 좌우제관이 경문왈공으로 언어여 초하시니 하고 오상셔 왈이  
 는기중 꼭절이 만흐니 즈연드르미 잇스리라 제공이 변식왈이 죄슈비 록간 응디답이나 임  
 의간상이 격발하얏고 동관이 승복하얏나니네 괴로이 형벌을 밧지 말나 영회와 앙던 탄왈아  
 등이 곳하여네 손에 맛출 줄알이 오하고 지만하시니 삼간의 하씨여 회등과 일반이라 츠스를  
 제달하고 사계를 쓰셔이 슈은디 상이 디 열하시여 회를 목 잘나 죽이고 삼간과 고령을 능  
 지쳐 참하시삼 죽을 슈멸하고 처첩을 관비 정속게하시각도에 정비하고 삼스 죽을 다 죽이

고쳐음득죄항야니치신록를여복관작항야부르시고진제위일반직신으로다벼살를  
 주시고의약을드려황후의간병항시니즉시영초항시거늘조야열복항더라초시육스고  
 항되회회지난슈년전에출유항야도라오지아낫스니거쳐를모론다항더이다상의의려  
 항스각도에구석항라항시니금오관이하가의집을다적물항고기모와쳐첩을관비정속  
 항야삼간의즈식을죽이고영화쳐를찬적항니셔로붓들고동곡항난경상이참불인견  
 이라라지산과노복이다라나니회라하씨티티영화부귀일조에멸항니엇지스람의불인  
 불충을경계치아니리오초시진상셔참연알하공부녀의김흔은혜오날부귀를엇고당  
 년하씨의명영한부락을바닷거날이제집이망항고티화하공게밋쳤스니하씨의부락은  
 부공과빅화를위함이라니엇지실신항야유명을져바리리오힘을다항야구치못항면니  
 또형제치말이라항고이에표문을지어답전에을이 고필하에티 죄항니상이포를보시  
 니알

죄진제위난괴군망상한죄를청항나이다신은본디전님악주즈스진원경의즈제빅  
 이로쇼이다제로식록항웁더니신의아비악주즈스되야불형괴제항오니곳셔신의나  
 허십제라무형데독신으로부모를쌍망항고일신이영정고々항야타항에유락항오니  
 사고무천항야갈고지업삼더니모년에하회지안찰스되야악주로순형항웁다가신을  
 만나거두어도라와문하에양육항야자질갓치스랑항오며설노약혼항오니하회지본  
 디양쳐를두어정실류시일즈일너를두고부실주시삼즈일너를두오니장너는류시의

소성으로신과연혼항웁고기즈빅화로동복이오한님학스도의현의쳐는주시의소성  
 이오영화등으로동복이오니회지는본디인효정티항야어진장부르디기즈삼인이간  
 흥항와아비교혼을듯지아나형미로질오항야상히지심을품어박디지심항웁더니하  
 지에초녀신을여어보고음모항야반야에신의취항은셔를타거짓서녀의모양으로나  
 와신의마음을도々오니신이취중에미녀를취축지 못하왔더니기후기녀즈로왕니  
 항오니신이저의문하에손이되어니당시비를잠동항웁이불안항와여러번물이치온  
 티신다려제형의업는혼단과거짓병인이라항야주인이신을속이다이간항오니신이  
 근본은모로오나기녀의요스함을지괴항웁고설스병인이라도밍약이구든바의실신  
 치못항와의리로질되항얏삼더니음녀제귀히될가져혀신을멸적코즈항와모형으로  
 더부러음득한계교를싱각고아비게참소항되신이월장규벽다항와신을히코즈항오  
 니신과슈약한녀즈듯고신의게글노누동항야다라나라항오니신지도주항와선신복  
 스의숨어소식을드르오니하녀신을보니고자결항야죽고음녀는도의현의쳐되얏다  
 항니하녀신을위항야죽고신이탈신할셔하녀신의게부락하되제집이불구에참화를  
 당항리니아비와동성을구항야달나항웁거날싱이그은혜를감동항와님의허락항고  
 나아왔삼더니오형성은을납스와답하에근시항얏스나삼간이전권항오미신의근본  
 을아온죽두번혀를납을가항야이러무로일흥과거주를곳치웁고감이명즈와직명을  
 숨기웁고감히성상을괴망항은지라저적의영화공형에서신을보고의심항오니신이

그독슈를두려병남지말고조야병을일커러사직호오니신의죄더욱김도쇼이다이  
 제삼간이디역지중죄를범호외피호고망호앗스니진실로하녀의선명함이전두길홍  
 을예탁호은지라희지에소즈빅화난나히어리고적으나극히인호정직호옵더니하녀  
 죽기를남호야면니피호고화를면케호오니과연누의죽은후거처를모른다호오며희  
 지난영욕을담심치아니호더니이제출뉴호연지삼년이라기즈의연모를아지못호옵  
 거날왕법을남으면업디여싱각건딘희지난국의공이만삼고총의외공심은거제가  
 아옵나니득별이득은남음이업스옵고또히를며삼간의죄후궁을처결호야영화와부  
 귀를도모함이오모역은아니오며님의유죄즈를복주호오니삼족의연좌난박절하온  
 지라희지의정총공심으로역류에복호오미실노원동호오니주문관쳐소이다희지  
 난총신이라제집변보를드른죽조당에서발석호기전에반다시왕법에나아올거시니  
 신이감히사당을위호옵이아니라총의직신을축은이아라득은을쓰죽호옵고성상의  
 활희성은을배푸심을주호오미오스은과스정을위함이아니라호오나또한스영업다  
 못호오리니맛당이만조에무르스공논이만일신이스스를위호외성총을가리오며왕  
 법을외호호다거던신이또한갈아리업디물사양치아니호오며중장을씩야영화를양  
 양이질기지못호을거시옵고만일하희지부즈당당이형류에나아간죽이난신이하녀  
 의게실신비은한죄신명에붓그러을지라엇지홀노의를바리오며신을일코섯스시명  
 리를담호야부귀를안향호리잇고이제당당이폐하죽이지아니시고바리지아니시

나신이하면목으로성조를더리오며성명지하에서리잇고반다시벼살를바리고고  
 향에도라가송죽을의지호야사성계활를님의로붓쳐세상영욕을스절호오리니이거  
 시신의소원이로소이다음녀교주는던하의죄인이라음스간특호오미무쌍호거날이  
 제외람이명부하에총슈호외규중풍속을더리오니초녀를규형추문호야법을다호  
 와던하에증게호시고신의분호오을풀으며하녀의절호를포장호스풍화를열이게호  
 소서호앗다라  
 상이람필에불승경단호스만조중에문의호시니이씨제신이하희지의던만무죄함을아  
 나감히기구치못호더니상의무르심을응호야닷도와세빅의상소를흠을주호은던던즈  
 또한공의총량을싱각호스추연감동호시고진세빅의상소총직함을아람다이니거스삼  
 간에죄디역지아닌줄쳐다르스다시드디여전지호스하희지부즈자현슈범호거던득은  
 으로서호야극변원찬호고삼족의주멸를쓰지말며각스정비호라호시고음녀교주는형  
 부에추문호라호시고하시의절호를표장호야호절비를세우라호시고진세빅을면유호  
 시니세빅이체읍스은호고물너오디또전지를나리오스위관이도가에가교주를잡으려  
 호더라초시교주조가에드러가구고의게총의를엇고조랑의사랑을남어복이일신에남  
 치니셔사를잇고양양즈득호야가지로사치호더니제집이참화를만나삼형이복주호고  
 그어미극변원찬호니망극한중도가에서괴괴한의논이이러나니구고밀막고한심이차  
 석히너겨방축지아니호니교주더욱망극호야슈야호곡호더니천만의외에위관이이르